

EU, 애플 2차전지 폭발원인 조사

i-Pod · i-Phone 잇딴 폭발사고 대응 ... 기존 · 추가사고 정보 요청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애플의 휴대폰인 아이폰(iPhone)과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iPod)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의 일간지 Telegraph는 EU집행위원회의 한 관리가 아이폰과 아이팟의 문제를 거론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애플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폭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제품 전반의 문제가 아닌 개별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라팩스시스템(비식품 유해소비재 긴급경보)을 통해 회원국에게 추가사고 여부나 기존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한 상태이다.

8월13일 프랑스의 18세 소년이 아이폰 폭발로 부상을 입는 등 유럽에서 아이폰과 아이팟의 폭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11살 소녀의 아이팟이 이상 가열현상과 함께 폭발했으며 피해를 입은 가족은 애플이 비밀유지 계약서 서명을 조건으로 환불해줬다고 주장했다.

7월에는 네덜란드에서는 아이폰을 두고 내린 한 남성의 자동차에서 불이 났으며, 6월에도 스웨덴의 자동차 화재사건에 아이팟이 연루돼 있다.

애플은 아이팟의 화재 관련 사실을 담고 있는 미국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의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막기 위해 애쓴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19>